

실습학기(인턴십) 최종보고서

- 인턴십 산업체명 : 푸드판타지
- 인턴십 과정명 : 푸드판타지 인턴십 과정
- 인턴십 기간 : 2019 . 06 . 24 . ~ 2019 . 08 . 02

2019 . 08 . 02

우 송 대 학 교

인턴십이란 임시적으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. 인턴십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인턴십을 하면서 1~2달만 일을 하지만 그 기간 사이에는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어느 직장에서 1~2달만은 일하기가 쉽지 않다. 하지만 인턴십이라는 명목 하 일을 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다.

인턴십을 한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다이닝을 가던 호텔을 가던 푸드 스타일링 쪽으로 스튜디오로 가든 자신과 맞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.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인턴십 과정이라고 생각한다. 또한 인턴십을 하게 되면 이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다. 스타일링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. 출근 시간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, 행사가 있는 날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, 점심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라서 마음 편하게 쉬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했다.

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 밖에 할 수 없다. 내가 아는 일도 없고, 출근 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 되는데 이런 모습이 이 곳에는 너무 민폐일까 봐 항상 물어보면 청소와 설거지를 먼저 시켰다. 처음에는 서러웠던 부분도 있었다. 직원 분들이 먹은 컵 설거지, 뒷정리, 스튜디오 청소등 이런 일들을 시켰는데 처음이고 인턴으로 온 거니까 참고 견뎠던 거 같다. 또한 같이 일하는 인턴분이 있어서 서로를 많이 도와주고 의지해줌이 있었기에 일에 적응하기에 수월했던 것 같다. 일을 적응 해 갈쯤 케이터링에서 촬영으로 가고 촬영에 조금 적응 하면 쿠킹클래스로 가고 이러다 보니 정신도 없었고, 적응 하는데, 조금 걸렸던 거 같다. 그래도 이런거 또한 경험으로 받아 들이며 참고 버텼던 거 같다. 이 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. 확실히 나보다 스타일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 온 사람은 어떤일을 시키면 한번에 알아 듣고 딱딱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 같다.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 하고 힘들어도 참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다.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비교도 당할 수도 있다. 스타일링은 정말 결과가 중요한 곳이다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해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하려고 했다. 그러다 보니 6주가 흐르게 되었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.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쓸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.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또 지루 할 수도 있다. 인턴십 과정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. 자신이 요리를 하고 싶은지,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를 결정 할 수 있는 시기다. 중요한 시기에 푸드판타지에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. 스튜디오에서의 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인턴십 경험이라고 생각한다.